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주·전남 미래산업 지원 이어진다

인수위, AI·친환경 재생 에너지 등 광주·전남 공약 이행 다시 강조
지역균형발전특위 광주서 보고회…김병준 "균형발전 여야·좌우 없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광주·전남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대선 공약 이행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4일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등 광주·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시도별 공약,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어디서 일을 하든, 또 어디서 살든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다는, 교육받았다는,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 일자리의 기회가 달라지고 심지어 결혼하는 데서도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 공간에서의 정의, 공정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문제에는 여당·야당도, 좌·우도, 진보·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후 AI, 에너지 등 지역별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했다.

광주 7대 공약은 ▲대한민국 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영암초(超)고속도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도심 광주(군) 공항 이전 추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광주 국제 자유민주인권 도시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다.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한 15대 정책 과제에는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AI 영재고 설립,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 자율주행차·고성능 슈퍼카 테스트베드 구축, 달빛 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등이 포함됐다.

전남 7대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 공항 육성 ▲첨단 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 벨트 구축이다.

15대 정책 과제로는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 친환경 K-푸드 및 수출 플랫폼 구축, 다도해 선샤인 웨이 해양 관광도로 건설 등이 제시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대국민 보고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김병준 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보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소형 태양광 설치 51만원 지원
11월말까지 850세대 선착순

광주시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할 850세대를 오는 11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355W)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355W급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70만원 안팎으로, 시에서 5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신청가구는 1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다수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 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추가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설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세대는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 패널 거치대, 마이크로인버터를 설치해 한 달에 35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월 7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관내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보유한 장소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중 보급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고려해 선택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2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대혁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시민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에너지 자립도시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우리 지역 에너지 생산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규제개혁 모바일로 알린다

카톡 채널 '규제개혁 알림이' 개설

전남도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플랫폼을 활용, '전남도 규제개혁 알림이'를 개설해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서비스 제약을 극복하고 도민,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규제개혁 알림이'에서는 규제 개선사항, 적극행정 사례, 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규제에 따른 불편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회신한다.

채널 가입을 바라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전남도 규제개혁 알림이'를 입력하면 된다.

전남도(www.jeonnam.go.kr)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누리집에 게시된 배너나 홍보물에 표기된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전남도 규제개혁 알림이' 채널로 바로 연결된다.

김미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비대면 추세에 맞춰 카카오톡 '전남도 규제개혁 알림이'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민과 기업인의 규제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업 구축 사업 신청 접수

농업법인·협동조합 대상
13일까지 시·군 통해 모집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해 친환경농업의 확산 기반을 닦는 '20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 참여 법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쌀, 원예, 가공 등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참여를 바라면 13일까지 시·군 농업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품목별로 벼 50ha 이상, 원예 및 가공품목 20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환경 인증면적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단체 구성원 모두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내년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규모에 따라 개소당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는 사업 대상자의 경영여건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유통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부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다.

전남도는 올해 사업에선 전국 18개소 중 최다인 9개소를 차지, 사업비 85억원을 확보했다. 올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조기 완공한다는 목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금형산업 공동물류체계 구축 본격화

뿌리산업 지원 공모 최종 선정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도 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혁신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혁신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지역 금형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해외소재 부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물류운송방법을 통일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물류효율화사업으로,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시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공동물류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요 수출국인 스웨덴에서 중국, 일본 등을 추가하고, 제품 브랜드와 국가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역 기업간 가치사슬 안정화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조공정의 혁신과 금형산업을 포함 뿌리산업의 점진적인 스마트 전환사업은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튼튼한 지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